

직업계고 82개교, 117개 학과 개편… AI 교과반영 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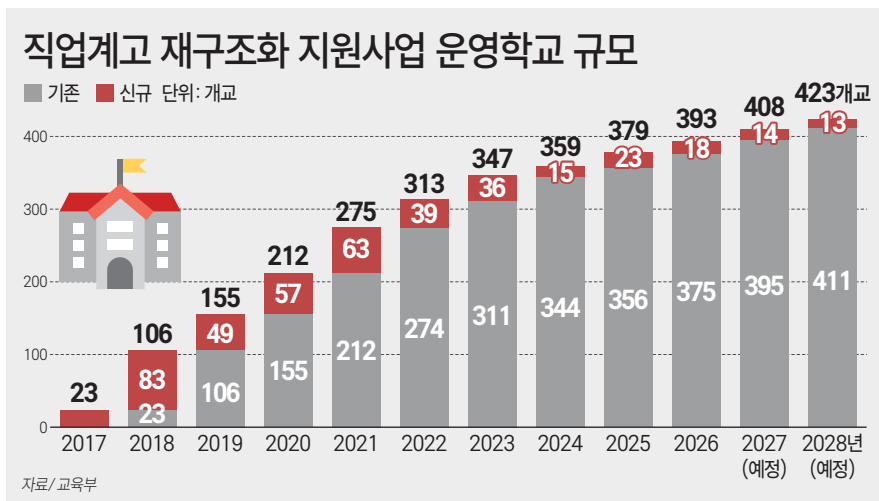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디지털 전환 대응 중심 개편 초점 AI·SW 분야 ‘최다’… 69개 학과

2028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학급 당 3.7억 보통교부금 지원

교육부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로봇 등 산업 수요에 맞춰 직업계고 82개교, 117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한다. 선정 학과의 67.5%는 교육과정에서 AI 관련 교과목을 포함했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사업에는 직업계고 87개교, 133개 학과가 신청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82개교, 117개 학과가 선정됐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기존 학과를 산업구조와 인력 수요에 맞게 개편하는 사업이다. 경쟁력이 낮아진 학과를 개편하거나 수요가 높은 학과를 증설하고, 산업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과를반도체시스템과나스마트소프트웨어과로 바꾸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440개교, 1247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했다. 매년 약 100개 학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2026년 기준 전국 직업계고에서 운영되는 학과는 약 2500개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유형은 신산업·신

기술 및 지역전략·특화산업 분야와 학교 자체 발전 분야로 나뉜다.

분야별로는 AI·SW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가 69개 학과로 가장 많았다. 모빌리티와 바이오 등 지역전략·특화산업 분야에서는 23개 학과가 선정됐다. 학생 수요와 학교 여건 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학과를 개편하는 학교 자체 발전 분야에서는 25개 학과가 선정됐다. 올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학급 증설 대상으로 선정된 학

교는 없었다.

올해 선정된 117개 학과 가운데 79개 학과가 AI 관련 교과목을 교육과정 개편안에 반영했다. 비율은 67.5%로 2024년 31.3%, 2025년 48.9%에서 계속 높아졌다.

성남테크노대학교는 정보보안과를 AI 사이버보안과로 개편한다. AI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추가해 보안 분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 학과를 교과군별로 보면 기계 분야가 21.4%로 가장 많았다. 경영·금융과 문화·예술·디자인·방송이 각각 12.8%, 전기·전자 11.1%로 뒤를 이었다.

선정 학교는 약 1년간 교육과정과 실습 환경을 정비한 뒤 2028학년도부터 개편 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개편 학과가 운영되는 직업계고는 2028년 전체 직업계고의 75.9%인 423개교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과 개편 학급당 약 3억7500만원의 보통교부금을 지원한다. 학급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학급당 2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원 연수, 기

재 구입과 실습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선정 학과에는 신입생 모집 전부터 첫 졸업생 배출 때까지 산업계 전문가의 컨설팅도 제공된다. 선정 학과 교원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 탐방을 지원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별 교원 교류회도 운영한다. 교류회에서는 기존 학과 개편 학교 방문, 우수 사례 발표, 교원 토론과 전문가 강의 등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 성과 등을 점검해 이후 학과 개편 사업에 반영하고, 분야별 우수 사례를 다른 직업계고에 공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과 명칭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정과 실습 환경을 함께 점검하겠다”며 “개편 학과의 신입생 충원과 졸업생 취업 성과까지 지속적으로 살펴 지원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4년내 초교 95% 아동보호구역 지정

서울시교육청 아동보호구역 계획
현재 117개교서 576개교 이상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2029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95% 이상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생한 미성년자

악취·유인 사건 이후 학생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아동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곳(19.3%)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별 안전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직 지정되지 않은 489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연도별로 지정 학교를 확대해 올해 152개교(25%), 2027년 243개

교(40%), 2028년 425개교(70%), 2029년에는 576개교 이상(95%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 및 경찰과 협의를 추진하고, 경찰의 아동범죄 발생 현황과 범죄 우려 지역 조사 결과를 반영해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순찰 강화를 추진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은 학교 안뿐 아니라 등하굣길과 학교 주변 생활권까지 이어진다”며 “아동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촘촘한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브랜드 공개

총사업비 989억, 내년 12월 준공 목표

경기도가 안산시 시화매립지에 조성 중인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의 대표 마크와 슬로건을 공개하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원 브랜드 육성에 나섰다.

경기도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에 조성 중인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의 대표 마크와 슬로건인 ‘버려진 땅, 다시 피어나다’를 공개하고, 현장 안내판과 홍보물, 누리집, 정원 안내체계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숲’은 ‘새로운 숲’과 다시 태어나는 자연’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과거 쓰레기와 오염의 공간이었던 시화매립지를 생태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경기도 대표 정원 조성사업이다.

도는 총사업비 989억원을 투입해 45만㎡ 규모의 경기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대표 마크는 나비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매립지에서 정원으로 변화하는 새로숲의 재생과 회복, 자연의 순환성을 상징하며, 나비가 꽃과 숲을 이어주듯 도시와 자연, 사람과 생태를 연결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주요 슬로건은 ‘버려진 땅, 다시 피어나다’, ‘경기도에 새로 핀 정원, 새로숲’,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 등이다. 과거 매립지가 도민의 일상 속 정원으로 다시 태어나 생태·문화·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가치를 표현했다.

경기도는 대표 마크를 각종 홍보물과 안내시설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도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새로숲을 경기도 정원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새로숲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7월 착공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파주시, 임진각 평화곤돌라 스카이워크 착공… 35.7억 투입

상부정류장~캠프그리브스 보행구간 급경사 개선…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파주시가 임진각 평화곤돌라 상부정류장과 캠프그리브스를 잇는 보행 구간 개선 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DMZ 평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임진각 평화곤돌라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진각 평화곤돌라 상부정류장에서 캠프그리브스로 이어지는 급경사 보행 구간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휠체어 이용자와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카이워크 조감도.

새로 조성되는 스카이워크에는 관광객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디엠지(DMZ) 벤치’와 ‘평화의 계단’ 등 휴영 구역,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휴게 공간,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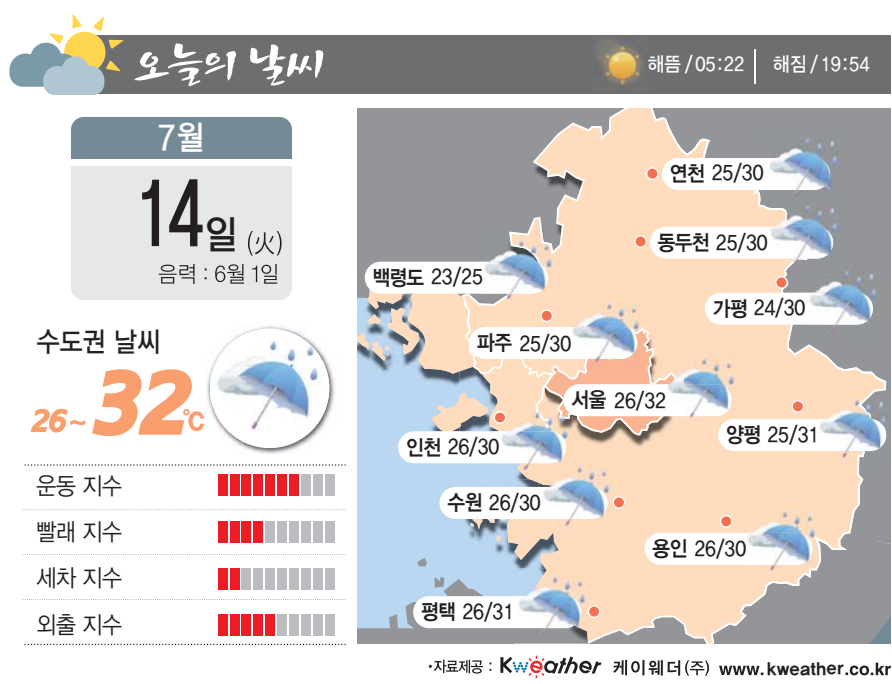
파주시는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공사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총 35억7000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경기도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예산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투입된다.

손배찬 시장은 “스카이워크가 완공되면 임진각과 캠프그리브스를 찾는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동 약자를 포함한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임진각 평화곤돌라 스카이워크와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도 발굴할 계획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美·中 갈등 속에도…美 패스트푸드 체인, 중국 시장 진출 가속 /사진 뉴시스
▲중국 북부도 태풍 ‘바비’ 영향권…라오닝성서 17만명 대피

▲태국 방콕 술집서 대형 화재…27명 사망·63명 부상
▲‘러 점령’ 우크라이나 지역서 전력·연료난 심각…생필품 가격도 덩달아 급등

▲中 6월 코로나19 확진 7만9000명…전월보다 5만7000명 증가, 사망 1명
▲“모즈타바의 변장?”…하메네이 장례식에 등장한 ‘검은 마스크’